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제1회 서울 신학 심포지움 열린다.

우리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에서 10가지 행사 중 계획된 서울 신학심포지움이 오는 2월23일(금) 오후7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21일(수) 개막케 될 미술전람회에 이어 세 번째 행사로 준비된 신학 심포지움의 주제는 경건과 영성이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원종철 교수가 칼빈의 경건 사상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건국대학교의 임희완 교수가 청교도의 경건 생활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이날 금요 다락방 모임은 저녁 심포지움으로 대신케 된다.

새예배당시대 전도 열기로 김썬다.

- 70인 전도대 연중 운영 -

전도위원회에서는 70인 전도대 훈련과 활동을 작년에 이어 연중 계속한다. 70인 전도대는 매주 토요일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70인 전도대의 프로그램에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가 은사에 따라 전도대원, 기도대원, 봉사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도대원은 전도훈련을 받고 노방전도, 축호전도, 병원전도 등 실제적인 전도활동에 나서며 태신자 관리와 양육을 책임진다. 특히 수요전도대(수요1부예배후)와 금요심야전도대(금요심야기도회 후)를 조직하여 대원들로 하여금 전도에 참여케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경대학에 전도학교를 개설하여 정예전도대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도대원은 전도대원들을 기도로 후원하게 되며 봉사대원은 원활한 전도활동을 위해 차량지원, 아기돌보기, 물질후원등으로 전도에 동참하게 된다.

식당에 구제 현금통이 비치된다.

우리 교회 만나 홀은 육의 양식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주일성수를 위해 교회가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대접을 받는 이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에 따라 구제위원회에서는 식당입구에 구제 현금통을 마련하고 굶주리는 이웃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키로 했다. 또한 매주 예·경사를 지낸 성도들이 30만원을 현금함으로 식사 제공비에 사용했으나 2월부터는 식사인원의 증가로 5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지난주 이모저모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철락... ↑



열심히 읽고 졸을 치시는 목사님 ↑



연휴에도 쉬지않고 인도 하신 교역자님들 - 수고많으셨습니다. ←

노안으로 돋보기를 쓰시고 열심히 읽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



새예배당- 첫번째

새가족 환영회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새 예배당의 첫 새가족 환영회가 열린다. 새가족부 부장의 인도로 1월 중 등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하는 모든 새가족은 이름과 등록하게된 동기를 간단히 발표하고 이달의 성구암송과 찬양을 부르게 된다. 가장 먼저 등록한 김지영 성도의 101명이 환영 대상이다.

교사 헌신예배

다음주 찬양예배에는 2001년도 교사헌신예배로 드린다.

이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2-24)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Ga | 5:22-24)



여호와의 주장

(이사야 41:17 - 20)



이중운 목사

사람마다 자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보는 입장과 자세 그리고 목적에 따라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달라 집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1.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기갈을 느낀 가련하고 궁핍한 세상으로 본다(17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풍요롭다고 외치지만 성경은 세상을 가난하고 가련하게 봅니다. 하늘 아래에는 불평하는 사람의 수가 감사하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진리와 의를 추구했지만 잡은 것은 지푸라기였다고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련하고 불쌍하며 기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나 생명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17절). 하나님은 험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므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18절). 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숲 속이나 초장에서 샘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험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땅에서 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1)하나님은 죄의 마른땅에 샘이 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죄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땅에서 샘물과 같이 생명수로 나타나십니다.

(2)하나님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샘이 되십니다

광야로 도망을 간 하갈은 절망에 처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상태에 있던 하갈은 천사, 곧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갈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고통 속에 있는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창 16:11), 아들을 낳고 변성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었고 하나님을 만난 샘을 '브엘라해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라고 했습니다.

(3)하나님은 고독한 광야에서 샘물을 내신다

집을 떠나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돌보는 이 하나도 없는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그리스도(샘)는 계십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 고향해 질 때 하갈과 같이 광야에서도 숨겨진 샘을 발견해야 합니다.

(4)마르지 않은 샘이 마른땅에 있다

성경에는 숨겨진 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안에 숨겨진 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많이 알수록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강도를 더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영적 절망과 기근과 기갈을 겪는 무리를 보시고 그리스도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도 진리와 사랑에 굶주려서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가련하고 빈핍한 영혼을 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광야에 나무들처럼 축복 받은 세상으로 본다(19절)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구원을 마른땅에 샘물과 광야의 나무,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19절에는 재복감으로서의 나무, 피서용 나무와 기름을 내기 위한 나무 등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인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한 자원같이 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다가 엘림에 거처를 정했을 때 거기에서 물 샘뿐 아니라 종려나무도 얻은 것처럼(출 15:27) 이 세상이 죄악으로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큰 바위그늘과 같습니다(사 32:2). 하나님께서 이방과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면 마치 켈레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백향목, 화석류, 잣나무로 바뀌듯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속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20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련하고 기갈 중에 고통 당하던 세상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샘이 되어 오심으로 광야를 물든 동산으로 변화시키듯 영적으로 저주받았던 우리에게 생명 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장하시니 여호와와 그의 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열에 조심합니다.

이운진 권사 (4교구)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만병의 원인인 호흡기 질환-감기로 고생하는 분이 많다. 동네 약국에서는 일년 내내 감기 환자가 끊일 날이 없다. 감기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로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침입한 것으로 대부분 일주일이면 자연치유 된다. 이러한 감기는 부적절한 영양, 피로, 스트레스 상태에서 잘 걸린다. 특히 대기오염은 호흡기질환을 가중시키므로 환경양심을 가지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나와 내 자손을 고열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 감기가 오면 콧물, 재채기, 기침, 두통, 발열, 목 아픔, 팔·다리가 쭉시며 설사와 복통을 동반하는 수도 있다. 발열은 일종의 생체 방어기전이므로 필요시 해열제를 쓸 것이며 기침은 생체의 방어반응이므로 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으며 가래는 자주 물을 마셔 희석시켜 배출시킨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주위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잘 시키고 온도

와 습도를 적절히 하고 寒冷으로부터 노출을 피하고, 자고 일어날 때도 갑자기 찬 공기와 접촉하기보다는 이불 안에서 혈액 순환을 시킨 후 나오는 것이 좋다. 과로를 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하며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행2:46) 生動物은 주의하여야 한다. 외출시에는 호흡기관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코(창2:7)를 잘 관리하여 심한 찬 공기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하며, 목을 감싸고 손을 잘 씻고 온도 변화가 심한 조건에서는 목욕을 삼가고 심하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켜야 할 가장 귀한 우리의 몸을(고전 3:16) 평소와 균형 잡힌 식사와 해가 뜬 후 아침 운동을 하며(딤후4:8, 말4:2)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여 catch a cold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기 예방과 치료도 고치시고 싸메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찾고 지혜롭게 극복하자.

부흥회를 마치고

김영란 집사 (5교구)

이번 설립 10주년 입당감사의 첫 행사로 열린 심령부흥성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로 오신 김의환 목사님의 부드러움과 진솔한 예화는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바르게 서는 모습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거듭나서 뜨거운 심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전임을 깨달을 때, 언행을 조심하게 하였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첫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일 크리스찬이 아닌 '월요일의 하나님'으로 온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시인하며 섬길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지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항상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전 2000명 동원

군선교를 위한 복을 올려라.

오광환 집사 (12교구)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지난해 124명의 기도온 용사가 군 세례 후원헌금을 하여 3사단에 매달 세례지원헌금을 보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여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군사들을 격려하였으며 또한 조국의 간성을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세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5만 여명씩 교육하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지난해 11월에는 군 선교 연합회와 본 서울교회의 주관으로 800명이 세례식을 이종운 목사님이 집례 하셨으며 24명의 미래교인(서울교회 인근에 주소를 둔 군인)과 21명의 군 파송 선교사(본 교회 교인으로 군에 입대한 군인)가 본 교회 성도 24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로 결연을 하여 그들이 군 생활과 신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 비전2020 임원들이 미래교인 가정집방을 통해 복음확장을 위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대-청부에서는 사랑의 편지와 순례자 후보 등을 계속 보내주어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의 온차를 보내 보초서는 호명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선교를 통한 복음확장을 위해 기존 세례지원 부대인 3사단 이외에 추가로 우리와 자매 결연한 삼척의 23사단을 세례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복음확장을 위해 진군의 복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이러한 군 복음화를 위해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물질헌금이 계속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농어촌 98교회와 결연 확정

올해 '농어촌 100교회 돕기 운동'은 98개 교회와의 결연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자매교회와의 결연 현황을 보면 개인 혹은 가정이 50개 교회, 남선교회에서 18개 교회, 여전도회에서 22개 교회, 다락방에서 2개 교회, 찬양대에서 1개 교회, 교회학교에서 3개 교회, 교역자회에서 1개 교회, 기타 1개 교회를 각각 후원하기로 했다. 우리교회는 도시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돕는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시작한지 7년째를 맞고 있다. 후원할 수 있는 교회는 100교회 남짓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 몸된 교회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향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교회 100교회운동의 또다른 취지이다.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 없이는 민족복음화의 길도 요원해 질 것이다.

우리부서는

새해 고등부의 목표는

이태운 전도사

많은 고등학생들은 주일에도 학원에 가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있다. 간단히 예배에 출석하고는 성경 공부가 끝나기 무섭게 학원으로 끌려간다. 자연히 개인적인 신앙 생활로 한정된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들의 웃음기 없는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불쌍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한다. 그래도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이 아닌가. 출발선 근처에 서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2001년 고등부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꿈(Ambition)'이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꿈이다. 그 꿈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인생을 미리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꿈이 없는 고등학생은 이리로 오라!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젊은이도 이리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고, 걸이갈 인생의 길을 눈으로 보듯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오직 미래의 꽃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새해의 고등부의 목표는 이것이다. 웃음기 없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의 꽃을 만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군교육사령부 교회 진중세례식

군선교를 위하여 힘차게 복을 올리는 목사님

백골부대 진중세례식 -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에바다부 탐방 하늘을 우러러 세바다하시니...

에바다부 부장 홍성주 집사는 많은 성도들께서 "에바다부가 뭐예요?"라고 물으신다면 에바다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며 하신 말씀으로 '열리라'는 뜻이고, 에바다부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교회학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에바다부는 2001년에 새롭게 개설된 부서이다. 아직 학생은 없으며 교사 17명이 수화를 배우며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밀알선교단의 홍유미 간사께서 수화를 지도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주된 특성은 언어발달지체이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가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해 직업을 갖는데도 상당한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문제들도 건청인(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 신실한 장애자 교사 설리반을 만나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약 35만명의 청각장애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인 수화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수화통역사 자격제도가 있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화인구는 턱없이 적다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부장이신 홍성주 집사나 다른 교사들도 에바다부에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수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청각장애인과 가까이 접촉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전달의 매개체가 되는 수화를 모르고서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다. 여부감이신 왕경희 권사는 그런 점에서 일반 성도들께서도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있는 수화교실(603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기 바란다 고 당부하신다. 에바다부 교사 모두는 입을 모아 에바다부와 수화교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고 한다.

교사들이 어느 정도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농아인들이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찾아가 학생을 유치하고 또한 주변 지역에 서울교회 에바다부에 관한 홍보를 겸한 전도를 할 계획이라고 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구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훗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고 한다.

차고 넘쳐서 즐거운 부서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한 영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애쓰는 에바다부 교사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허 숙 (편집부)



국제선교의 초석-영어성경반

김인수 집사 (2교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사명을 지키기엔 많은 문제가 있다. 국제 선교를 한국말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제 선교는 국제 공용어로 된 영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교회 영어 성경 반에서는 영어 사용권 국가에서 다년간 유학을 했거나 직장 생활 등을 통해 생활 영어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들과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영어를 교육하고 계신 현직 영어 교수 및 교사로 구성된 교사진이 공과 공부를 비롯한 모든 순서를 영어로 진행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 주고, 국경 없이 넘나드는 정보의 바다를 누비며 살아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인으로서의 안목을 갖고 사는데 필수 도구인 영어에 대한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영어에 대한 성숙도 및 연령을 감안하여 몇 개의 조를 편성, 조별로 지정된 교사의 성경 강해 및 질의 응답 방식을 통해 성경을 영어로 공부하게 된다. 외국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오랜 기간에 걸쳐 매일 지속적으로 언어와 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 세기 바울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나 영어성경 학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주저 마시고 곧 신청하길 바란다. 아울러 영어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교사로 모시고자 하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란다.

동정

- 이중윤 목사는 29일 (월)부터 이틀간 전남 광주 동 노회 연합계직 수련회를 인도하고 광주지역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한다. 또한 2월1일, 2일 이틀간 숭실대학교가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강연한다.
- 이남호장로 여육기 권사 (12교구) : 대형시계 1점 기증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권장철 집사, 권성욱 성도 (9교구)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교회약도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1년 계획한 것 성취하도록